

특강 | 원한의 도덕과 음모론의 신앙

2주차: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과 원한

— 피해의식, 증오, 그리고 음모론의 심리학

강사: 정제기 (에라스무스 연구소 연구원)

지난 시간 핵심 요약: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덕의 계보』 1논문 및 『안티크리스트』 성직자 비판의 핵심 논지 재정리

[01] 전통 도덕 비판 & 참된 기원

- '선과 악'의 전통 도덕은 역사적으로 고안된 허구임 폭로
- 영국 심리학자들의 '유용성/망각' 가설의 역사적 오류 지적
- 좋음(Gut)의 진짜 기원: “고귀하고 탁월한 인간들 자신”

[02] 주인 도덕 vs 노예 도덕

- 주인 도덕: 지배자 스스로의 충만함, 긍정, 자율성, 고귀함
- 노예 도덕: 약자들의 무력감과 원한(Ressentiment)에서 발생
- 수동적 반발: 겸손·복종을 '선'으로, 강자의 힘을 '악'으로 규정

[03] 성직자 계급과 가치전도

- 약자의 원한을 신학적으로 조직하여 절대적 율법으로 체계화
- 강자의 생명력을 '악'으로, 약자의 굴종을 '선'으로 전도
- 가치전도를 통해 성직자가 신의 대변인이자 구원 권력으로 군림

[04] 현실 부정에서 음모론적 신앙으로

-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인의 '죄'와 '타락'으로 내면화
- 복잡성을 견디지 못해 '숨은 원인'과 '악한 적'을 창조함
- 자기 집단의 순수성 확인 및 원한과 적대적 공격성의 정당화

7절 함께 읽기

7절 핵심 탐구 질문 및 주제

- 사제의 무력함은 어떻게 정신적 권력이 되는가?
-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

제7절 해설: 무력함에서 정신적 권력으로

사제적 귀족의 등장과 원한(Ressentiment)의 연금술

[01] 전사적 귀족 vs 사제적 귀족

- 전사적 귀족: 강건한 육체, 무력, 전쟁, 직접적 행동과 표출
- 사제적 귀족: 육체적·물리적 무력함과 열세에서 출발
- 무력함에서 비롯된 깊은 증오가 독특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

[02] 행동할 수 없는 힘의 내면화

- 직접적 행위로 발산되지 못한 힘과 분노가 내면으로 굴절
- 밖으로 나가지 못한 에너지가 인간의 내면을 깊고 복잡하게 형성
- 무력함이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고 '정신성(Geist)'의 계기 마련

[03] 원한의 방향과 의미 부여

- 사제는 수동적 무력감을 '도덕적 우월성'과 '신성함'으로 재해석
- 파편화된 원한 감정을 조직화하여 종교적 교리와 목적의식 제공
- 약함과 고통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거대한 집단적 동력 창출

[04] 정신적·도덕적 권력으로서의 전환

- 물리적 열세를 '도덕적 심판'이라는 독창적 정신 무기로 반전
- 강자의 힘을 '악(Böse)'으로, 약자의 굴종을 '선(Gut)'으로 전도
- 세속의 물리적 지배를 뛰어넘는 신성한 도덕 지배 권력으로 확립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8절 강독

8절 함께 읽기

“사랑은 원한의 반대인가, 원한의 완성인가?”

제8절 해설: 원한의 최고 성취로서의 기독교적 사랑

“사랑은 원한의 반대가 아니라, 원한이라는 나뭇가지에서 피어난 가장 승화된 꽃이다”

[01] 사제적 복수심과 가치전도의 승리

- 유대 민족의 사제적 원한은 전통적 귀족 가치를 뒤집음으로써 복수함
- '고귀한 자=악한 자', '가난하고 악한 자=선하고 거룩한 자'로 재정의
- 가장 깊은 증오에서 비롯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복수의 성공

[02] 원한의 나무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꽃

- 기독교적 '사랑'은 증오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연장선임
- 나뭇가지(원한과 복수심)가 깊어질수록 그 끝에서 가장 찬란한 성스러운 '사랑'이 개화
- 구원자의 신성한 사랑은 깊은 성직자적 증오의 가장 매혹적인 결실

[03] 인류를 사로잡은 거대한 '승화된 미끼'

- '사랑'이라는 숭고한 미끼를 통해 온 세계가 유대적 가치에 자발적 승복
- 고귀한 귀족적 가치에 대한 복수가 '사랑과 구원의 종교'라는 미명으로 완수됨
- 반발을 사지 않고 모든 강자를 무릎 꿇게 만든 고도의 심리적 유혹

[04] 노예 반란의 승리와 세계사적 귀결

- 구원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노예 반란의 가장 결정적인 깃발이자 승리
- 노예 도덕의 승리가 '사랑'의 탈을 쓰고 세계사적 도덕 질서를 완전 정복
- 결국 기독교적 사랑은 원한의 부정(否定)이 아니라 원한의 최절정의 완성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10절 강독

10절 함께 읽기

“원한은 어떻게 창조적인 것이 되는가?”

10절 해설 ①: 귀족도덕과 노예도덕의 가치평가 비교

비교 항목	귀족도덕 (Herrenmoral)	노예도덕 (Sklavenmoral)
가치평가의 출발점	긍정적 자기 승인 (“나는 좋다”)	외부/타자에 대한 부정적 반발 (“너는 악하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충만하고 탁월한 고귀한 존재	가해받는 피해자 &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차이와 경의, 거리두기의 대상(거리의 파토스)	경계, 증오, 타락, 경멸의 대상
적(敵)의 필요성	불필요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정당한 대치자	정체성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사악한 적(Böse)'
행동과 반응	주체적 행동, 에너지의 직접적 표출	수동적 반응, 억눌린 무력감의 내면화
기억과 망각	톡톡 털어내는 능동적 망각의 힘	상처와 피해의식을 지속적으로 반추하는 기억
행복의 방식	넘치는 활동과 생명력의 발산	안식, 평온, 무기력, 굴종의 정당화
가치 창조의 방향	긍정에서 출발하는 일차적 가치 창조	부정에서 유래하는 이차적·반사적 가치 정립

10절 해설 ②: “사악한 적(Böse)”과 “선인(Gut)”의 반사적 창조

STEP 01

“사악한 적(Böse)”의 선행 규정

타자에 대한 원한과 부정에서 출발

-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외부의 강자·타자를 먼저 '사악한 적'으로 지목함
- 무력함에서 유래한 증오와 피해의식을 상대방의 '악의'로 규정
- 귀족도덕의 '나쁨(Schlecht)'과 달리 극단적 증오가 담긴 '악(Böse)'의 탄생

STEP 02

대조로서의 “선인(Gut)” 발명

적과 대비시켜 구성된 자기상

- '사악한 적'을 먼저 상상한 뒤, 그것과 완벽히 대조되는 존재로 자신을 유추함
- “저자가 악하므로, 그에게 당하는 나는 선하다”라는 반사적 논리
- 긍정적 자기 가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적의 나쁨에 기생하는 선(Gut)의 관념

STEP 03

“선인=나 자신”의 도덕적 착각

노예도덕 특유의 수동적 가치 정립

- 스스로 훌륭함을 입증할 힘이 없기에, 적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순수성을 확보함
- 무력함, 복종, 자제력을 '선한 도덕적 미덕'으로 위장하고 자위함
- 원한이 창조적 가치전도의 기제가 되는 도덕심리학의 핵심 정점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11절 강독

11절 함께 읽기

“나쁜 사람’은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제11절 해설: '나쁨(Schlecht)'과 '악함(Böse)'의 역사적 가치전도

귀족도덕의 경멸적 '나쁜 인간'에서 노예도덕의 도덕적 '악한 인간'으로의 전환

[01] 주인도덕의 '나쁨(Schlecht)'

- '종음'을 먼저 정립한 후 남은 것에 부여하는 사후적 개념
- '나쁨'은 무능함, 불쌍함, 졸렬함에 대한 유감과 동정적 경멸
- 도덕적 죄악이나 단죄가 아닌, 단지 '탁월함의 부재'를 의미

[02] 노예도덕의 '악함(Böse)'

- 원한과 증오에 차서 강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차적 개념
-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사악한 마귀'로 객관화·절대화
- 파멸시켜야 할 도덕적 죄악이자 증오와 복수의 정당화 수단

[03] '금빛 야수(Blonde Bestie)'와 야성

- 공동체 내부의 관습·규범을 벗어날 때 폭발하는 귀족들의 야성
- 승리와 지배를 향한 날것의 생명력이 외부에 고통과 공포를 남김
- 약자들의 시선에서 이 승리하는 야수는 '악마'로 경험됨

[04] '문명화'라는 명목의 길들이기

- 노예도덕은 강자의 야성과 생명력을 억압하고 나약하게 만들
- 위험한 야수를 '독니가 빠진 온순한 동물'로 길들이는 과정
- 생명의 약화와 퇴보를 '인간 고양'과 '문명'으로 포장함을 비판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13절 강독

13절 함께 읽기

“맹금과 어린 양의 비유”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14절 강독

14절 함께 읽기

“도덕적 이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2주차 강의 | 『도덕의 계보』 1논문 15절 강독

15절 함께 읽기

“천국은 복수의 완성인가?”